



고래의 죽음이 살린 바다 및 생태계

2013.07.12 |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이스라엘, 인도, 콜로라도, 덴마크 등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기업가 정신이 융성했던 깊고 어두운 비밀 중의 하나는 ‘대기업의 몰락(corporate fall)’에 있었다. 현존하는 거대 기업들의 소멸과 침몰 이후 그 퇴적물로 기업가정신의 문화가 배양되었다는 것이다.

노키아의 고통이 창조적 파괴가 될 수 있다(Nokia's woes could be a case of creative destruction).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이스라엘과 핀란드가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가 대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유독 이 두 나라가 벤처 창업 열기로 뜨겁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앵그리버드의 로비오(Rovio)와 클래시오브클랜으로 유명한 수퍼셀(Supercell)의 모국 핀란드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태블릿과 스마트폰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핀란드 헬싱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수퍼셀 설립자의 호언은 허풍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키아의 몰락으로 핀란드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는 이렇게 새로운 벤처 창업 열기로 뒤바뀌었다. 세계적인 거인 기업 노키아의 몰락에 대한 핀란드의 한 모바일 시장 분석가의 지적은 이렇다. “노키아 직원들은 노키아 안에 안주했고 모험적인 벤처를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 창업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편협한 기술만을 창조해왔습니다.”

핀란드 정부와 업계 역시 무너져가는 노키아를 되살리는데 국력을 쏟기보다는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오로지 한개 거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식의 새로운 노키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대신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에 수백 개의 로비오와 슈퍼셀이 필요하다.”(“We don’ t need a new Nokia, to be totally dependent on one company. Instead we need a couple of hundred Rovios or Supercells.”) 핀란드의 한 벤처 사장의 인터뷰다.¹⁾

물론 로비오는 아직 노키아에 견줄 바가 아니다. 순이익이 50%성장했다지만 겨우 7천만 달러에 불과하여 작년에 노키아가 낸 30억 달러 손실을 보충하기에는 어렵도 없다. 직원 규모도 아직 500명에 불과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노키아가 해고한 직원 1만 명을 담기에는 턱없이 적은 규모다. 그러나 수 십 개, 수백 개의 로비오가 창업하고 성장하여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흥미 있는 글이 게재 되어 소개한다. 고래의 죽음이 바다 밑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비유를 들면서, 대기업의 몰락이 다수의 벤처 창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던 사례를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노키아의 사례를 가장 먼저 꼽고 있고, 그 외에도 노키아와 유사한 운명을 겪고 있는 캐나다의 블랙베리,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도에 이르는 사례를 돌아보고 있다. 물론 이들 사례의 예시가 대기업의 몰락을 고무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글쓴이는 강조하고 있고, 대기업이 하기에 따라서는 몰락이 아니라 ‘살아서’ 도 얼마든지 중소기업과 벤처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하는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다양한 중소벤처들이 활성화되는 창조경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상상력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나 ‘납품가 후려치기’, ‘물량 밀어내기’ 같은 관행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는 창업 활성화가 어렵도 없다는 사실은 굳이 이 글을 읽지 않아도 확연히 알 수 있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중소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자기희생은 고사하고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거대기업의 몸집을 유지하는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앵그리버드를 만든 벤처회사 로비오(Rovio)는 사실, 노키아가 모바일 업계 세계 선두주자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2003년, 노키아가 주최하던 모바일 게임 개발대회에서 우수한 헬싱키 기술대학 학생 3명이 창업한 회사였다. 당시에 누가 노키아와 로비오의 엇갈린 운명을 짐작이나 했을까? 아마 기업의 운명은 이렇게ダイナミック한 것인지도 모른다.

1) The Globe and Mail, 2012.11.14 "From Nokia to Angry Birds: Finland's tech economy whiplash"



거대 기업이 몰락하면, 기업가 정신은 살아난다.
(When Big Companies Fall, Entrepreneurship Rises)

2013년 3월 18일

다니엘 아이센버그(Baniel Isenberg)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고래가 죽으면 30~100톤이나 되는 고래 사체(whale fall-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고래 사체-위키피디아)가 천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곳에서 반세기 이상 해저 동식물들이 번식할 수 있는 복잡하고 새로운 소우주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

(죽은 고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업 고래(corporate whales)’가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벤처의 성장을 위한 자본 투자자로서,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으로서, 소규모의 역동적인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도와주는 마케팅 파트너로서의 역할 등등. 나는 대기업과 모험적인 벤처기업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필요성을 굳게 믿는 사람이다. 즉,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대기업 없이는 번영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 인도, 콜로라도, 덴마크 등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기업가 정신이 융성했던 깊고 어두운 비밀 중의 하나는 ‘대기업의 몰락(corporate fall)’에 있었다. 현존하는 거대 기업들의 소멸과 침몰 이후 그 퇴적물로 기업가정신의 문화가 배양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지금 핀란드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거인 기업 노키아가 약 1만 명에 달하는 고급인력을 방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노키아에서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브릿지 프로그램(Nokia Bridge Program)’은 해고의 고통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더 유능한 인재들을 의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고려된 전략이다.

노키아 ‘브릿지 프로그램(Nokia Bridge Program)’

노키아는 매출하락이 현실화되고 대량해고가 불가피해져 가는 2011년 봄부터 스스로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이라는 것을 가동한다. 일종의 퇴직자 창업지원 프로그램인데 퇴직자 1인당 약 3000만 원 정도의 별도 창업지원을 하는 등 노키아에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벤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키아 자신이 도와주는 것이다. 약 1만 명 이상이 노키아에서 퇴직했는데 2011년 한해 4,20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드라마는 림(RIM)의 블랙베리 스마트폰이 쇠퇴하면서 ‘워털루 캐나다’ 라고 적절히 명명된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당초 림(RIM)의 성공에 자극 받았던 키치너 워털루(Kitchener-Waterloo)지역의 ‘퀀텀 허브(Quantum Hub)’ 는 이제 그 조그만 지역에 넘쳐나는 수천 명의 고급 인력들로 인해 부침의 격동을 겪고 있는 중이다.

블랙베리 제조사 ‘리서치 인 모션(Research In Motion; RIM)’ 의 몰락

얼마 전까지 노키아와 함께 스마트 폰 시장을 장악(2007년 기준 북미 시장의 41% 차지)하던, 캐나다 키치너 -워털루 전자단지 소재의 림(RIM) 역시 2011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다. 2012년 회사 이름을 아예 블랙베리로 바꾸면서 회생을 노리고 있지만 2013년 적자가 확실해지고 있고 몰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 프로젝트 중단이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킨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1987년 여름, 미국의 강력한 압력 아래 이스라엘 정부는 ‘라비(Lavi) 전투기 프로젝트’ 를 갑작스럽게 중단하여 논란거리가 되었다.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손실된 일자리는 대략 1500 개에서 그 두 배 정도에 이른다. 이스라엘의 기업가 정신이 라비 프로젝트가 중단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고양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수 천 명의 고급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창업을 했거나 창업회사에 들어갔다. 이 경우에서의 현실은, 새로운 신생 벤처의 생명을 불어넣는데 하나의 유망한 프로젝트의 파산이 담보되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라비 전투기 프로젝트(Lavi fighter project)’의 중단

미국의 F-16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첨단 전투기 독자 개발 프로젝트로서 이스라엘이 1980년대 중반에 추진하여 1986년 초도비행에 성공하는데 까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전체 비용의 40%가깝게 지원을 했던 미국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 중단을 밝히면서 1987년에 프로젝트는 중단된다.

1970년대에 인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1977년까지 IBM은 인도에서 정부와 기업, 군대가 가장 선호하던 메인 프레임 공급업자로서 자유롭게 활동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외국인 기업으로 하여금 자국민 주주들에게 60%이상 지분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IBM 경영진은 “내 눈 앞에서는 안 된다” 면서 매몰차게 회사를 폐쇄해 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는? 수 천 명의 IBM출신의 훈련받은 인도인 임직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원들은 수많은 신생 BPO서비스(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공급자의 출현을 도와주었고 일부는 자기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다. IBM의 관료주의에 대해 들어왔던 빈정거림이 뭐든지 간에, IBM은 늘 컴퓨터 판매와 서비스, 엔지니어링을 위한 최고의 훈련장으로 인정받아왔다. 인도의 한 컴퓨터 서비스 창업 광고에는 “IBM은 떠날지 모르지만 IBM기술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IBM May Not Stay but IBM Talent is Here to Stay)” 라고 되어 있다.

또 다른 IBM 사례는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가 계속되고 있는 콜로라도 볼더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그만 볼더 지역에서 (최근 2010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IBM의 다운사이징 물결은 이 지역이 자랑할 만한 창업지역으로 부상된 것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람들의 관찰에 따르면 “볼더 지역에서 유능한 IBM 직원들을 초기에 해고한 것이,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거나 창업기업에 들어가도록 지대한 역할을 했다.” 는 것이다.

“대기업의 몰락” 은 “기업가 정신의 부상(entrepreneurship rise)” 을 이뤄내는 중요한 요소이다.(물론 많은 요인 중의 하나다.) 대기업이 몰락하면 기업 생태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그들은 현실에서는 창조적이고 참신한 방법으로 거의 언제나 적응하거나 성장한다. 나는 기업들이 몰락하거나 몸집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하면 수많은 직원들이 퇴출되어 거리로 쫓겨나는 아픔을 잘 알고 동정하면서 이런 적응과 성장을 관찰해왔다. 여기에서 함축하는 것은 기업의 몰락을 장려하거나 박수를 치자는 것이 아니다. 고래(대기업)의 몰락 후에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고래(대기업)를 죽이자고 호소하는 것은 명백히 아니기 때문이다. 🐋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blogs.hbr.org/cs/2013/03/when_big_companies_fall_entrep.html



2013년 새사연의 '세계의 시선' 목록

2013년 7월 12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세계의 시선	1/11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이수연
세계의 시선	1/28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 협동조합	김병권
세계의 시선	1/25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이은경
세계의 시선	1/27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김병권
세계의 시선	2/1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김수현
세계의 시선	2/12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여경훈
세계의 시선	2/14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최정은
세계의 시선	2/19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이수연
세계의 시선	3/9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김병권
세계의 시선	3/12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이수연
세계의 시선	3/21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최정은
세계의 시선	3/26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김수현
세계의 시선	3/29	뱅크런과 구제금융 ABC	여경훈
세계의 시선	4/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백년만의 영국 연금개혁	이은경
세계의 시선	4/9	영국 아빠들이 '출산휴가' 를 거부하는 이유	최정은
세계의 시선	4/16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가지 화살	여경훈
세계의 시선	4/23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김수현
세계의 시선	4/30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김병권
세계의 시선	5/7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이수연
세계의 시선	5/14	'복지 여왕' 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이은경
세계의 시선	5/21	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최정은
세계의 시선	5/24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김병권
세계의 시선	5/28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여경훈
세계의 시선	6/4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김수현
세계의 시선	6/10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김병권
세계의 시선	6/19	퀘벡 상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이수연
세계의 시선	6/25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여경훈
세계의 시선	7/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김병권
세계의 시선	7/11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여경훈
세계의 시선	7/12	고래의 죽음이 살린 바다 밑 생태계	김병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